

# 원도심 걷고 싶은 거리 문화적 활성화 방안 연구

동두천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lan for Cultural Activation of Preferred Promenade in Original Downtown; Mainly around Jungang-ro, Dongducheon-si

주 저 자 : 하봉수 (Ha, Bong Soo)

동양대학교 교수

see@daum.net

<https://doi.org/10.46248/kids.2021.2.185>

접수일자 2021. 05. 25. / 심사완료일자 2021. 06. 11. / 게재확정일자 2021. 06. 24.

이 논문은 2020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Abstract

For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plan for cultural activation which can rebuild Jungang-ro Dongducheon-si as preferred promenade in connection with physical road improvement project that is planned mainly around its avenue. To this end, preceding studies are made in 2 times. Their outcome & examination of literary materials are added to them in this article so that specific cultural program which pursues cultural settlement & expansion of Jungang-ro may be planned and politic program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may be presented. Plan on cultural program is based on the fundamental conception which is to construct space for visitation, walking & healing through reverse attraction presented by 3 strategies, beauty, God & taste that reflect identity & sense of place of the region. Further, superordinate concept, 'Kkokkil Cultural Gardening' & subordinate themes, 'Kkokkil Color Gardening', 'Kkokkil Styling', 'Kkokkil Culture Plant', 'Kkokkil Friends' are chosen first to implement fundamental conception so as to design each detailed program. Then, administrative support program is presented in the aspect of H/W, S/W & Hu/W to expand cultural program & to ensure continuity. In conclusion, as Dongducheon-si is a city which has central values that should be pursued by us these days such as peace, human right, consideration, cultural diversity, etc on the background of painful memory of modern history, space & culture which ensures the most quotidian and peaceful life in consideration of the aged and the weak needs to be settled and it is expected to be program for replenishing such cultural energy.

## Keyword

Resurrection of Cultural City(문화적 도시재생), Pedestrian-Friendly Commercial Avenue(보행 친화적 상업가로), Kkokkil Cultural Cardening(꼬길 문화가드닝)

## 요약

본고는 동두천시 중앙로 가로변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물리적 도로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거듭 날 수 있는 문화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는 이들 선행연구 결과 및 문헌자료 검토를 추가해 중앙로의 문화정착 및 확산을 지향한 구체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 프로그램 기획은 지역의 정체성 및 장소성을 반영한 미(美), 신(神), 미(味)의 세 가지 전략이 제시하는 '반전매력'을 통해, 방문하고 싶고, 걷고 싶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구축한다는 기본구상을 전제로 했고, 또한 기본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꼬길 문화가드닝'이라는 상위 컨셉트와 '꼬길 컬러가드닝', '꼬길 스타일링', '꼬길 문화발전소', '꼬길 친구들'이라는 하위테마를 선정한 다음,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의 확산 및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H/W측면과 S/W측면, Hu/W측면에서 행정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동두천시는 현대사의 아픈 기억을 배경으로 평화, 인권, 배려, 문화 다양성 등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심 가치를 갖고 있는 도시로서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공간,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고, 그런 문화 에너지의 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목차

###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 2.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근거 종합

- 2-1. 동두천시 정책 검토
- 2-2. 사례 및 트렌드 분석
- 2-3. 지역민 및 전문가 의견 분석

## 3. 기본구상 및 문화적 활성화 계획

- 3-1. 기본구상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공여지 이전을 비롯해 신시가 지 건설 등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쇼핑상가, 재래시장, 의료시설 등 다양한 상업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중앙로는 도로 및 가로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혼잡한 교통상황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권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원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로의 물리적 도로개선을 통해 가로환경 및 교통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명 ‘도로 다이어트사업’으로 도로의 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혀 보행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람들이 찾아오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신구시가지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그림 1) 특히, 이러한 물리적인 사업만으로는 상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도로개선과 더불어 문화적 자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두 차례의 선행연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자산 고찰<sup>1)</sup>과 문화적 활성화 요인과 요인별 우선순위를 밝혀 보고한 바 있다<sup>2)</sup>. 본고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로의 문화정착 및 확산을 지향한 구체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의 효과적 실행

- 1) 하봉수·이승환, 동두천시 중앙로 걷고싶은 거리 문화적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지역자산 고찰, 디자인리서치, Vol.05, No.3, pp.122-133, 2020
- 2) 하봉수, FGI/AHP분석을 통한 원도심 상업가로의 문화적 자산 및 중요도 검토 : 동두천시 중앙로를 대상으로, 디자인리서치, Vol.06, No.1, pp.36-49, 2021

- 3-2.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 3-3. 정책적 제안
- 3-3. 결과 및 시사점

## 4. 결론

## 참고문헌

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중앙로 도로개선사업  
(전체구간 및 1차 대상구간)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동두천시 원도심(중앙로)의 문화적 활성화를 지향한 연구는 표 1과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동두천시 및 원도심(중앙로) 지역과 관련된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기저에 깔린 문화적 DNA 파악하고, 시민과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2차 연구는 정성 및 정량적 조사연구로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FGI)와 상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서 지역자산의 중요도 및 그 우선순위를 밝혔다.

본 연구는 3차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로서 이상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나아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검토, 동두천시 장기발전계획 등 정책적 자료분석을 더해 상인가로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이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 1] 연구과정**

구분	1차	2차	3차
성격	기초연구	심화연구	정책방안연구
목적	상인가로의 사회, 문화적 발달배경 및 문화적 자산 발굴	지역자산의 중요도 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	문화적 활성화 액션전략 및 정책적 방안 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조사 및 인터뷰</li> <li>상인대상 설문조사</li> <li>시민대상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인대상 소그룹 심층면접(FGI)</li> <li>상인 및 전문가 대상 AHP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행연구 결과 종합</li> <li>동두천시 발전계획 검토</li> <li>국내외 사례 분석</li> </ul>

## 2.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근거 종합

### 2-1. 동두천시 정책 검토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도출을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우선 동두천시의 정책 및 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준거로 삼고자 했다.

동두천시<sup>3)</sup>는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이라는 시정구호를 선두로 시민중심 소통행정, 희망가득 복지 도시, 만족하는 경제, 질서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시정 방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미래국가산업의 중심도시, 교육이 특별한 도시, 소상공인이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더불어 좋은 도시,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등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후반기 중점사업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중앙공원의 시민수영장과 키즈 헬스케어시설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 시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중앙로·생연로·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등에 두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개선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sup>4)</sup>에 의하면, 지역을 6개의 공간으로 구획한 권역별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즉 소요산역, 소요산 국민관광단지 일대를 포함하는 수도권 가족형 관광 거점 ZONE, 보산역~동두천 시청~지행역 일대를 포함하는 문화 예술 ZONE, 신천~캠ป์ 모빌~동두천역~캠ป์케이시 일대를 포함하는 신중심지 거점 ZONE, 왕방산 일대 권역으로 MTB체험단지 및 현 추진 중인 산림관광지 조성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레포츠 휴양 거점 ZONE, 동두천 국가산업 단지를 포함, 산업단지와 신천을 잇는 중간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클러스터 거점 ZONE 등으로 구획하고 있다. 특히 보산역~동두천시청~지행역 일대를 포함하는 문화예술거점 ZONE의 세부계획을 보면, 보산동 관광특구, 4개 전통시장 등 기존 관광자원과 현재 추진 중인 K-Rock 빌리지, 디자인 아트 빌리지, 5060 청춘로드 사업을 연계하여 문화예술적으로 지역을 특화해 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보산동 관광특구 내 K-Rack 빌리지 조성 사업, 디자인 아트 빌리지, 동두천중앙역 인근 5060 청춘로드, 지행역 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산동 관광특구, 5060 청춘로드, 지행역을 연결하는 가로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과 가로의 성격 및 주요활동, 가로와 가로를 연결하는 거점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결국 문화예술거점 ZONE의 가로 커뮤니티 구축 및 네트워크화를 토대로 주요 거점간의 차별화와 일체감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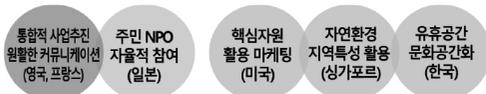
### 2-2. 사례 및 트렌드 분석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적 주안점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통합적 사업추진과 장기적 자금지원, 추진주체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영국 도시재생정책), 통합적 사업전개와 도시재생사업 절

3) [https://www.ddc.go.kr/ddc/index.do\(21.03.10\)](https://www.ddc.go.kr/ddc/index.do(21.03.10))

4) [http://www.ddc.go.kr/ebook/site/src/viewer/main.php?host=main&site=ddc\\_plan\\_2018\(21.03.10\)](http://www.ddc.go.kr/ebook/site/src/viewer/main.php?host=main&site=ddc_plan_2018(21.03.10))

차의 단순화, 사업참여기관 자율성 보장(프랑스 도시재  
생정책), 지역의 핵심자산 중점 육성, 축제와 상업활동  
연계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추진(미국), 주민 및 NPO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일본), 자연환경  
및 지역 특성을 자산으로 활용한 예술을 위한 국제도  
시 지향(싱가포르) 등을 손꼽을 수 있고<sup>5)</sup>,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의 정책적 연계,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sup>6)</sup>.(그  
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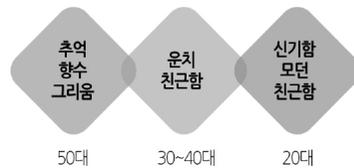
[그림 2] 선진국의 정책적 방향

구체적인 사례로 인구 500명의 작은 농촌에서 영화  
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관광지로 변신한 할리우드<sup>7)</sup>는  
예술과 디자인의 접목이 지역특색 살리기의 효과적 수  
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웅변한다. 또한 역사문화유산  
을 활용해 역사체험 및 관광 활성화를 달성한 스페인  
고르도바(Cordoba) 역사문화지구 및 일본의 카나자와  
사례<sup>8)</sup>는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예술을 통한 거리풍경 개선, 문  
화예술의 거리로 지역 브랜드 향상 및 구도심 활성화  
를 시도한 익산시<sup>9)</sup>의 경우, 특정한 대상을 타깃으로  
한 핀셋 처방으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춤을 주제로 한 축제<sup>10)</sup>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 천안시의 경우 역시 예술  
을 접목한 문화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별한  
형식과 내용을 발견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Newtro)<sup>11)</sup>는 과

5) [https://arkonet.tistory.com/232\(21.02.21\)](https://arkonet.tistory.com/232(21.02.21))  
6) [http://ufnews.co.kr/detail.php?wr\\_id=4216\(21.02.21\)](http://ufnews.co.kr/detail.php?wr_id=4216(21.02.21))  
7) [http://otot.co.kr/lecture/goods\\_list.php?Index=57&goodsidx=10567\(21.01.12\)](http://otot.co.kr/lecture/goods_list.php?Index=57&goodsidx=10567(21.01.12))  
8) [https://arkonet.tistory.com/272\(21.01.12\)](https://arkonet.tistory.com/272(21.01.12))  
9) [https://blog.naver.com/titoms20/222287438176\(21.01.13\)](https://blog.naver.com/titoms20/222287438176(21.01.13))  
10) [https://www.cheonanfestival.com/\\_kor/index.asp\(21.01.13\)](https://www.cheonanfestival.com/_kor/index.asp(21.01.13))

거와 미래가 공존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기 있  
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상회, △△당 같은 옛날  
식 상호를 사용하거나 과거에나 사용했을 법한 글씨체  
와 디자인의 간판을 볼 수 있다. 실내를 꾸민 인테리어  
는 물론이고 메뉴판과 그릇 역시 복고풍이다. 특히 흥  
미로운 것은 이 복고 열풍을 즐기는 주체가 젊은 층이  
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 번도 직접 써본 적 없는, 할머  
니 시대의 소품과 분위기에 흥뻑 빠져 있다. 이러한 뉴  
트로에 열광하는 이유, 호감을 갖는 이유는 세대별로  
상이하다. 50대는 대부분 ‘추억’, ‘향수’, ‘그리움’이라는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며, 30~40대는 같은 기억에  
의존하면서도 ‘운치’, ‘친근함’이 강조되며, 20대는 ‘신기  
함’, ‘모던’, ‘친근함’을 이유로 들고 있어, 다른 세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3) 실제로 젊은 층은 현대  
적인 감각을 더해 진화한 뉴트로가 온전한 옛것보다  
받아들이기 쉽다는 반응이다. 즉 지금 성공적인 카페·  
식당에서 보이는 뉴트로 문화의 특징은 공간과 소품  
등 하드웨어만 옛 것일 뿐, 음식 메뉴나 서비스 방식  
등의 소프트웨어는 최신식이다. 결국 뉴트로에는 기성세  
대에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는 새로운 스토리와  
감각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신·구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화적 매체이자 수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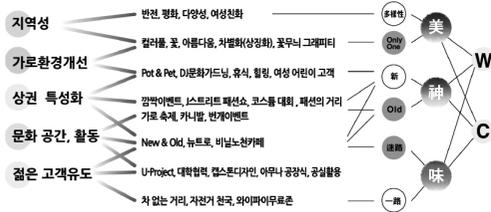
[그림 3] 뉴트로 호감 키워드

### 2-3. 지역민 및 전문가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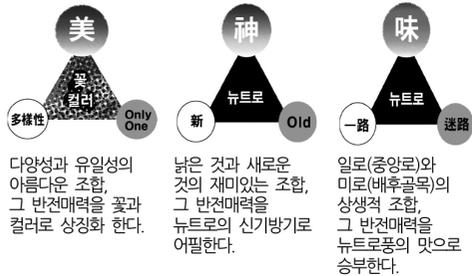
지역상인 및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로 및 도로환경 개선과 활용에 방점을 두고 걷  
고, 보고, 거닐고, 사진 찍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낡은 건물파사드 및  
사인물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로 및 건물을 경  
비하고, 공실 및 빈 건물을 활용하여 휴게시설 및 문화  
시설을 구축하여 젊은 층을 유입시키고, 또한 상업가로  
인 만큼 주차장을 확장해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버스킹, 전시, 푸드

11) [https://news.v.daum.net/v/20180530000209153\(21.02.05\)](https://news.v.daum.net/v/20180530000209153(21.02.05))  
[https://news.v.daum.net/v/20180531000222952\(21.02.05\)](https://news.v.daum.net/v/20180531000222952(21.02.05))





(b) [그림 4] 카드쇼팅을 통한 키워드 구조화



[그림 5] 기본전략

이상 키워드의 구조화를 통해 도출된 기본구상의 핵심은 그림 5와 같이 미(美), 신(神), 미(味)라는 세 가지 개념과 W(Wain Zone)와 C(Collaboration)라는 두 가지 개념이 보완된 형태다. 여기서 미(美)는 군사문화의 아픔과 희망을 간직한 지역 역사성을 반영해 여성배려 및 여성친화 도시를 지향한 키워드로서 결국 지역의 다양성과 유일성의 조화로운 융합과 그 반전매력을 꽃이라는 소재의 유일성과 컬러라는 다양성으로 상징시켜 표출함으로써 지역의 시각적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신(神)은 원도심이 보유한 추억의 자산을 버리지 않고 부흥시키는 방안으로 낡은 것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것의 재미를 가미한 공간구성을 통해 새로운 반전매력(신기방기)을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미(味)는 중앙로(一露)와 배후골목(迷路) 상점가 사이의 각기 다른 레시피를 통한 상생적 발전을 추구하며, 그 반전매력을 뉴트로의 맛으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W(Wain Zone)는 무료 와이파이, 무료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젊은 층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아루나 공방, 아루나 갤러리, 아루나 씬터 등 핫스팟 구축의 토대를 만든다는 전략이며, C(Collaboration)는 지역의 대학 및 문화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간다는 전략으로 결국 W와 C는 핵심전략의 추진에 있어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히 미(美), 신(神), 미(味) 세 가지 키워드는 다양

성과 유일성, 신(新)과 구(舊), 직선도로(一露)와 미로(迷路)의 대조적인 개념이나 현상의 조합으로 탄생된 결정체로서 결국 이러한 대조적 조합에서 만들어지는 '반전매력'을 제공함으로써 방문하고 싶고, 걷고 싶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의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꼬길 문화카드닝'이라는 표현컨셉트와 '꼬길 컬러가드닝', '꼬길 스타일링', '꼬길 문화발전소', '꼬길 친구들'이라는 하위 테마를 선정한 다음, 각각의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표 3과 같이 제시했다.

[표 3] 세부 프로그램 구성

목표	가로환경개선 및 상징화	상권특화/이미지 지개선	문화 허브 토대 구축	공동체 회복 /지속성 강화
테마	꼬길 컬러가드닝	꼬길 스타일링	꼬길 문화발전소	꼬길 친구들
세부 프로그램	가로축제(꼬길 카니발 부활)			
	건물 파사드 꽃무늬 그래피티 (미디어파사드)	와인존(무료 와이파이)	지역대학과의 MOU	
	꼬길 스트리트 패션(쇼)	코스튬, 코스프레	꼬길 스타일 운영체구성	
			아루나 공방 아루나 갤러리	문화예술가 연계 및 지원
	게릴라 가드닝	꼬길 노천카페 (아루나 노래방)		
	차 없는 거리 (보행자천국, 자전거천국)	이륜올림픽		
	Big Pot/ Pot & Pet	깜짝(번개) 이벤트		
꽃 가로등				

### 3-2.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 3-2-1. 꼬길 컬러가드닝

##### ■ 건물 파사드 꽃무늬 그래피티

본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동두천의 역사 및 정체성을 반영한 여성배려, 인간존중, 평화 이미지 구현에 지향점을 두고 대학생 및 지역문화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해 노후건물 꽃무늬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하여 상업가로의 특성을 간직한 차별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 및 상인의 참여기회 확대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주요내용은 가로변 건물 중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2~3개의 건물 외벽에 꽃무늬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며, 이 때 전국 대학생 꽃무늬 그래피티 대회 개최 등 전국 규모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지역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한다. 또한 가로변 배후 골목길에도 꽃무늬 그래피티 작업을 실시하고, 현행 가로수를 대체하는 Big Pot과 꼬길 노천카페 등에도 꽃무늬 그래피티 작업을 진행하여 가로 전체가 일

체감을 갖도록 한다.(그림 6)



[그림 6] 꽃무늬 그래피티 제작 예시

### ■게릴라 가드닝

가드닝은 노후되고 침체된 가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되살리며 화젯거리를 제공하여 원도심 방문의 기회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역 대학생과 문화예술가, 그리고 주민 및 상인들이 협력하여 진행한다.(그림 7) 대상지는 지역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테마 및 장소, 그리고 Big Pot, Small Pot, 노천카페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그림 7] 게릴라 가드닝 제작 예시

### ■Big Pot \_ Pot & P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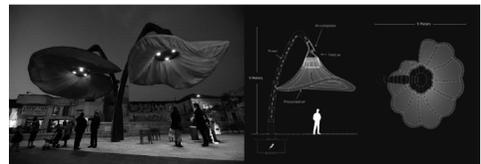
기본방향은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를 제거하고 대형 화분(Big Pot)을 설치함으로써 상점간판의 시인성을 제고하고, 넓어지는 인도 공간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림 8) 화분은 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창 및 발코니에 Small Pot을 설치하여 가로 분위기와 통일시킨다. 또한 Pot과 Pet을 연계시켜 여성 및 어린이 고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Big Pot에 꽃무늬나 강아지 패턴 그래피티 작업을 비롯해 화분 주위에 벤치, 노천카페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Big Pot 및 Small Pot 제작 예시

### ■꽃 가로등

꽃 가로등은 꼬깃 컬러가드닝을 대표하는 시각적 랜드마크로서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뿐만 아니라 빛 센서 및 물체 센서 등을 채용해 조명 및 차양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형성과 기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꽃 가로등 제작은 전국적 공모를 통해 지역 홍보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 중앙공원 일대 핵심 공간에 설치하여 상업가로에 대한 상징성과 화제성을 제고한다.(그림 9)



[그림 9] 꽃 가로등 사례<sup>12)</sup>

### 3-2-2. 꼬깃 스타일링

#### ■꼬깃 스트리트 패션쇼/코스프레 대회

기본방향은 상업가로의 주업종인 의류패션, 헤어, 뷰티, 액세서리 샵 등이 중심이 되어 관계자 연합(꼬깃스타일 운영위원회)을 조직하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길거리 패션쇼와 더불어 코스튬, 코스프레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상권특화를 지향한다. 특히 본 이벤트에는 지역민, 상인, 대학생, 문화예술가, 어린이, 다문화가족, 반려견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 가로상점가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킨다.(그림 10)



[그림 10] 꼬깃 스트리트 패션쇼 예시

12)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5409](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5409)(21.02.25)

■꼬길 노천카페

노천카페는 가로상가 외벽에 달아낸 형식의 간이시설로 일자형 도로가 만드는 단조로운 동선을 개선함과 동시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그림 11) 여기에 와이파이 및 인터넷 무료 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젊은 고객층을 유도하고, 신기하면서도 친숙함이 가미된 뉴트로 풍의 스타일로 고객 확대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주요내용은 가로변 환경을 고려해 고객의 접근성, 이동 편의성, 공간적 여건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재로 소형 노천카페를 설치하고 뉴트로 풍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으로 스타일링한다. 여기서는 차와 음료는 물론 거리 노래방, 버스킹, 캐리커처 등 문화활동의 핫스팟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그림 11] 꼬길 노천카페 예시

■꼬길 깜짝 이벤트

본 프로그램은 중앙로 일원을 차 없는 거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깜짝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상업가로에 대한 화제성을 높이고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층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벤트 기획은 상가 및 문화예술가 단체의 협력을 통해 구상하고, 이벤트 내용은 상업적, 공익적 내용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화제성을 높인다. 또한 광장 등 공간적 여건을 활용하여 스트리트 패션쇼, 코스튬, 코스프레, 플래시 몹 등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제성과 의외성을 강화시켜 마치 놀이공원과 같은 즐거운 체험공간으로 인식전환을 유도한다.(그림 12)



[그림 12] 꼬길 깜짝 이벤트 예시

3-2-3. 꼬길 문화발전소

■아무나 공방, 아무나 갤러리

본 프로그램은 가로 건물 중 공실을 학생들의 문화

실험, 창작, 전시 등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문화자산의 지속적 발견과 육성을 위한 실험실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꼬길 문화가드닝의 동력을 만들어 가는 문화발전소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그림 13) 장기적으로 대학생 및 젊은 층의 유입과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및 상인과의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3] 아무나 공방 예시

■이륜올림픽

가로변 상가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자전거에 주목한 프로그램이다. 즉 자전거를 이동수단에 한정시키지 말고 젊음, 건강, 놀이 문화로 확산시켜 이색 축제로 발전시켜 동두천을 '동그라미 두 개의 천국'으로 포지셔닝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문화예술가, 지역민이 참여한 NGO형식의 이륜올림픽위원회를 구성하고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한 중형적 이벤트로서 전국규모의 이륜올림픽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원도심에 활력을 충전한다.(그림 14)



[그림 14] 이륜올림픽 예시

3-3. 정책적 제안

3-3-1. H/W정책

■직선도로의 곡선화

중앙로는 동두천 원도심을 남북으로 잇는 매우 단조로운 직선도로다. 따라서 도로를 곡선화함으로써 시각

적 단조로움의 해소와 더불어 교통 및 보행상의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과속 방지를 통해 보행 안전도 기대할 수 있다.(그림 15) 즉 곡선으로 도로를 조성할 경우, 노천카페, Big Pot 설치 등 휴게, 녹지공간 구성에 있어 공간적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보행동선 확보로 채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 구간을 현행보다 넓게 확보하고, 기존의 직선 패턴에서 탈피해 자유롭고 흥미로운 디자인 패턴을 구현함으로써 가로 자체가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5] 직선도로 곡선화 예시

■도로 분수, 중앙공원 분수, 중앙로터리 분수 설치

중앙로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젊은 층의 접근이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대학생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고, 자전거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대학교에서 중앙로까지, 송내 시내에서 중앙로까지 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이동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륜올림픽 개최 등 문화적 행사로의 자전거 붐 확산을 위해서는 분수 및 분수공원은 매력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공원 수영시설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분수설치를 제안한다. 물론 분수는 자전거 이용객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쇼, 가로 축제, 깜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특히 하절기 상인 및 방문객에게 청량한 환경을 제공하며 걷고 싶은 가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그림 16)



[그림 16] 가로 및 공원분수 예시

3-3-2. S/W정책

■Senior Center 구축 및 인생 3모작 사업 추진

중앙로 가로변 상가건물 공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니어센터(Senior Center)를 설립하여 실버 크리에이티브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노인들의 고립방지, 건강관리 교육, 운동, 자신감 회복 등과 함께 지역상인 역량강화 교육, 지역 대학생 등 젊은 층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한다. 공간구축은 지역에서 후원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대학교에서 담당하면서 대학생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인 교육내용은 IT 간단 사용법, 유튜브 교육, 스마트폰 활용법 등 사회적응교육과 취미 문화 교육으로 구성한다.

■Street Identity Program 구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꼬깃 문화가드닝’이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Street Identity Program(SI) 구축을 제안한다. 보통 시각적이며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서 사람들은 쉽게 공감한다. 즉 형식이 내용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조직의 경우, 이러한 시각적 상징물이 지역민의 비전과 공감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꼬깃 문화가드닝을 위한 상징체계 구축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사이의 공감과 이해를 도모하며 사업추진 동력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앙로를 상징하는 로고·마크, 캐릭터, 컬러 시스템 등 SI시스템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로 정체성 강화는 물론 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3-3-3. Hu/W정책

■‘꼬깃 친구들’ 연합체 구축 및 운영 지원

문화적 자산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마인드 및 조직적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상인의 역량강화 및 문화적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 자산에 대한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두천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문화창출 및 확산을 추구해 가야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문화단체 및 활동가 연합의 구성 및 지원 정책을 명문화 하여 주민 스스로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꼬깃 문화가드닝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꼬깃 친구들’을 비롯해 꼬깃 스타일링 등 세부 프로그

램 추진을 위한 상인 중심의 실행조직 구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하다.

#### 4. 결론

동두천시 원도심(중앙로)의 문화적 활성화를 지향한 연구는 소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초연구에서는 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자산을 파악했고, 심화연구에서는 정성 및 정량적 방법을 활용해 중요 자산 및 그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 선행연구를 종합한 정책방안 제안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사례조사와 정책관련 문헌검토를 통해 기본구상 및 활성화 프로그램 디자인,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 문화는 물질적 콘텐츠와 정신적 콘텐츠에 의해 오랫동안 축적되고 편집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삶의 패턴이다. 때문에 무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에 내재된 문화적 DNA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소스로서 재구성하고 개념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동두천시 원도심(중앙로)의 문화적 활성화는 시의 역사문화적 이력을 무시할 수 없다. 동두천은 6·25전쟁이후 미군기지의 주둔과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담고 있는 도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특수한 지역이다. 특히, 지금도 기지촌의 인상을 비롯해, 군사도시, 위험하고 거친 도시라는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의 아픈 기억은 평화, 인권, 배려, 문화 다양성 등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심 가치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처럼 군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동두천의 사람들은 어쩌면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최근 ‘아무 노래’라는 곡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별하지 않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 오히려 관심을 받는 시대다. 아무나 올 수 있고, 아무거나 살 수 있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이고 안전한 도시,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 할 것이다. 결국 동두천시는 ‘일상성 회복’과 ‘배려의 도시’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중앙로 상업가로의 경우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나 문화 에너지의 충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역민의 걸치 인사이트 발견과정을 거쳐 완성된 ‘J 스트리트’라는 새로운 지역브랜드와 그 의미를 상징하는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는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시각적 매체이자 문화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의 생명은 지속성에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상징화된 문화아이콘은 다양한 문화활동의 지속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의 개발작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화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해 상인간의 자주적이며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선택적 지각’의 경향이 강하다. 또한 선택적 지각의 반대편에 있는 ‘무주의 맹시’로 인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필요한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향적 인식을 완화해서 원만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의 자주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적 지원 및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하봉수·이승환, 동두천시 중앙로 걷고싶은 거리 문화적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지역자산 고찰, 디자인리서치, Vol.05, No.3, pp.122-133, 2020
2. 하봉수, FGI/AHP분석을 통한 원도심 상업가로의 문화적 자산 및 중요도 검토 : 동두천시 중앙로를 대상으로, 디자인리서치, Vol.06, No.1, pp.36-49, 2021
3. <https://www.ddc.go.kr/ddc/index.do>(21.03.10)
4. [http://www.ddc.go.kr/ebook/site/src/viewer/main.php?host=main&site=ddc\\_plan\\_2018](http://www.ddc.go.kr/ebook/site/src/viewer/main.php?host=main&site=ddc_plan_2018)(21.03.10)
5. <https://arkonet.tistory.com/232>(21.02.21)
6. [http://ufnews.co.kr/detail.php?wr\\_id=4216](http://ufnews.co.kr/detail.php?wr_id=4216)(21.02.21)
7. [http://otot.co.kr/lecture/goods\\_list.php?Index=57&goodsIdx=10567](http://otot.co.kr/lecture/goods_list.php?Index=57&goodsIdx=10567)(21.01.12)
8. <https://arkonet.tistory.com/272>(21.01.12)

9. <https://blog.naver.com/titoms20/222287438176>(21.01.13)
10. [https://www.cheonanfestival.com/\\_kor/index.asp](https://www.cheonanfestival.com/_kor/index.asp)(21.01.13)
11. <https://news.v.daum.net/v/20180530000209153>(21.02.05)
12. <https://news.v.daum.net/v/20180531000222952>(21.02.05)
13.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5409](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5409)(21.02.25)